

역사를 영화로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제작된 영화들이 속속 개봉한다. 지난 16일 영화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감독 이조훈)이 전국 104개 상영관에서 개봉했으며, '아들의 이름으로' (감독 이정국)는 11월 관객과 만난다. 또 한국인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의 '좋은 빛, 좋은 공기'는 내년 4월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출품 후 국내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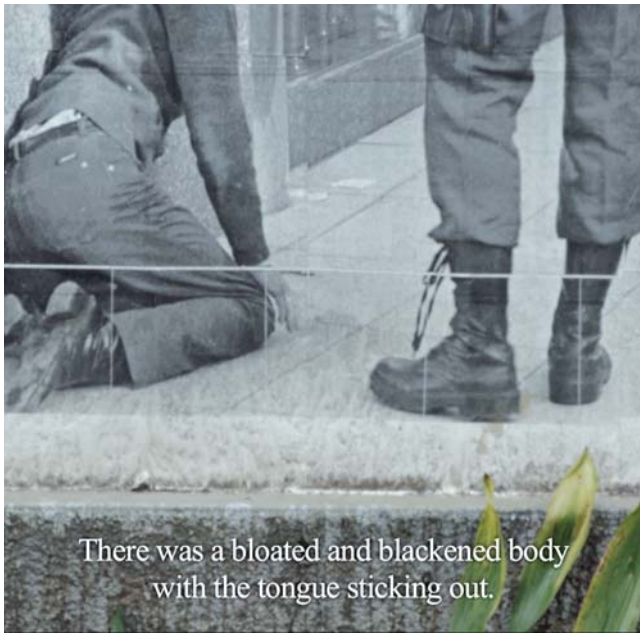
이 작품들은 모두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박용석)이 5·18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취지에서 기획한 '광주브랜드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영화들이다.

영화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은 1980년대 중반 5·18 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작·유통된 영상 기록 '광주비디오'의 탄생과정을 다루면서, 기록 속에서 비워져있는 4시간에 대한 추적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의 진상에 다가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1980년 5월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이조훈 감독은 고등학생 시절 '광주비디오'를 접한 것을 계기로 다큐멘터리 감독의 꿈을 키웠으며,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다룬 '블랙딜', 박정희 정권의 개혁사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인 '서산개척단'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아들의 이름으로'는 오는 11월 개봉한다. 국민배우 안성기,

'좋은 빛, 좋은 공기'



'아들의 이름으로'



5·18 전국화·세계화

40주년 기념 광주브랜드영화 전국 개봉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104곳 상영

안성기 출연 '아들의 이름으로' 11월 예정

'좋은 빛, 좋은 공기' 내년 베니스영화제 출품

윤유선, 박근형 등이 출연해 지역 영화계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전직 공수부대원이 죄의식에 시달리다 반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해 하반기 크랭크인했으며 유·스퀘어, 무등산 등 광주 전역에서 촬영했다.

최진실·박신양 주연의 영화 '펼치'의 메가폰을 잡기도 한 이정국 감독은 지난 1991년 5·18을 다룬 최초의 극장용 상업영화 '부활의 노래'로 데뷔했다. 이후 5·18 소재 단편 영화 '기억하라'와 장편 영화 '반성' 등을 제작하며 5·18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좋은 빛, 좋은 공기'는 지난 2015년 다큐 '위로공간'으로 베

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의 작품으로 고통, 꿈, 거울이라는 세가지 키워드에서 시작했다. 영화 제목의 '좋은 빛'은 광주를, '좋은 공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의미하며,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의 실상을 발굴·복원하는 내용이다.

작품은 5·18 항쟁의 흔적인 옛 전남도청을 지키기 위해 수년째 접거시위를 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시대(1977~1983)에 벌어졌던 납치와 사망, 실종사건 등에 대한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악몽같은 과거와 꿈이었으면 하는 현실을 말하고자 한다.

미술작가, 영화감독으로 활동 중인 임 감독은 미술과 영화라는 장르를 해체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국내외의 우수 미술관 및 영화제에 작품이 소개되면서 세계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영화주간지 씨네21이 뽑은 '2013 한국영화 베스트 10' 선정 등 호평을 받은 '비밀' (2012)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코리안 판타스틱 관객상을 수상한 '려행' (2017),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2019) 등을 연출했으며, 사르자비엔날레(2015), 데이트 모던(2015), 폰피우미술관(2016), 카네기 인터내셔널(2018) 등의 전시에서 작품이 소개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시아의 표해록' '조선표류일기'

아시아문화원-부경대 공동 발간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과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김영섭)가 2년여간 협력 끝에 7편의 표해록을 담은 '아시아의 표해록'과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등 해역인문학총서 2권을 발간했다. 2018년부터 공동 연구한 이번 결과물은 영·호남간 문화 콘텐츠 공동 연구 및 교류사업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아시아의 표해록'에 수록된 7편 표해록 중 2편의 한국 표해록을 제외한 5편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자료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다양한 교류의 역사와 실상을 보여준다.

한국 표해록 2편은 부산에서 출발해 표류하다 북해도와 일본 본토 그리고 대마도를 거쳐 부산으로 돌아온 이 지향의 '표주목' (1696)과 제주도를 출발한 뒤 풍랑을 만나 베트남까지 갔다가 돌아온 김대환의 '표해일록' (1687)이다. 이어 중국의 표해록으로는 대만을 출발해 베트남으로 표류한 기록인 채정란의 '해남잡지' (1836), 중국에서 출발해 베트남에 표착한 반정규의 '안남기유' (1688)와 일본으로 표류한 정광조의 '표박일기' (1842)을 수록했다.

일본의 표해록으로는 일본에서 표류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만주와 조선을 거쳐 돌아온 이들의 구술을 받아 적은 이시이 분의 '달단 표류기' (1644)를 실었다. 베트남의 표해록은 일본으로 표류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옮겨 적은 장동계의 '일본견문록' (1815)을 담았다.

한편 '아시아의 표해록'과 '조선표류일기'는 아시아문화전당과 부경대학교 공동 주최로 27일부터 부경대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표해록' 전시와 10월 27~29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4회 세계해양포럼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예술작품 렌트사업·서울아트쇼 참가

전남문화재단, 지역작가 작품 모집

전남문화재단이 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작품 렌트사업과 서울아트쇼 참가 작품을 모집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 홍보와 판매 지원을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예술작품 렌트사업은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을 공모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임대하고 임대 수익은 전액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오는 12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아트쇼 참여작가에 선정되면 부스 임대료와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아트쇼는 국내외 130여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적인 미술박람회로 전남 작가들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 시장 개척 등 직접적인 수도권 미술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일 기준으로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 출신 미술작가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모집부문은 회화, 입체, 공예 등이다. 예술작품 렌트사업은 8월9일까지, 서울아트쇼 참가작품은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최종 선정작 외에도 지원된 공모 작품작 전체는 임대작품 풀(pool)로 활용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여성작가 '5人色'

'진한미술관 정예작가 초대전'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광주예술품의 거리 진한미술관에서 열린다.

'5人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명의 여성 작가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김금란 작가는 발레리나의 모습과 붉은 꽃이 어우러진 '향연'과 다양한 색감의 장미를 머리에 인 여인의 모습을 담은 '장미화관'을 선보이며 김은미 작가는 점묘법으로 풍경을 묘사한 수채화 작품 '봄의 정원'과 '탄젠트'를 전시한다.

또 이선하 작가는 당산나무와 마을 풍경, 농악놀이 등이 어우러진 수채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정영신 작가는 두터운 붓

20~31일 진한미술관 정예작가 초대전

김금란·김은미·이선하·정영신·정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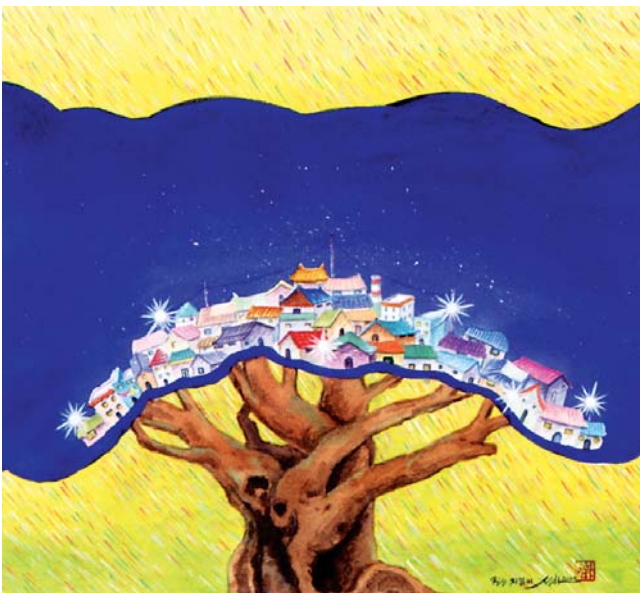
질의 매력을 살려 다채로운 꽃의 질감을 표현한 '카네이션' 등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정혜인 작가는 풍경 작품을 내놓았다. 제주도의 초기집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모습, 붉게 물든 단풍과 은행나무를 통해 가을의 정서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진한미술관 명예관장을 맡고 있는 조각가 정윤태 작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대리석 작품 '함께 해요-더 나은 미래', 김연화 조각가는 석고로 사람의 손을 독특하게 표현한 '담다' 등을 한조출품했다.

오프닝 행사 20일 오후 5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선하 작 '진도지킴이'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CES INNOVATION AWARDS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부산 엑스퍼트 [혁신기술상] 수상

BIG INNOVATION CHAIRMAN'S CHOICE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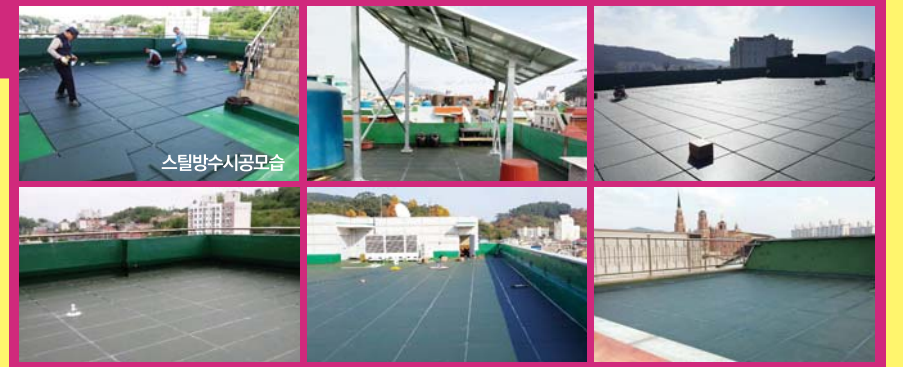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MC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